

주간 2014. 12. 29.

전남농업정보

15
VOL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재배동향

최근 배추 가격동향 및 출하 동향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쌀, 엽근채소, 과채, 축산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입 동향

'14년도 12.9일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대비 5.3%증가한 77.4억불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2015년 한우교배 책임질 보증씨수소 17마리 선발!

접목선인장 생산성 높이는 2단 수경재배 평가 받아

정책동향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2015 달라진 주요 제도와 시책

전남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본격 돌입

사업신청 안내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 또는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근 배추 가격 동향 및 출하 전망

- 12월 도매가격 작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32%, 46% 낮은 수준
- 12월 중순 전남 겨울배추 주산지(해남, 진도, 무안)에 눈이 많이 내렸으나 겨울배추 작황 피해는 미미하여 내년 1월 출하량은 금년보다 10% 많을 전망

❁ 농축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공식품** : 간장(샘표) 4,757원/ℓ, 고추장(대상) 588원/100g, 김치(대상) 6,412원/kg, 두부(풀무원) 1,077원/100g
 - 전년대비 간장 1.7% 상승, 고추장 0.5% 상승, 김치 15.9% 상승, 두부 2.4% 하락
- ▶ **식량작물** : 쌀 41,400원/20kg(전년보다 하락)
 - 수확기 가격하락과 식용소비량 감소전망으로 가격 하락 전망
- ▶ **엽근채소** : 배추 380원/1kg, 무 440원/1kg(전년보다 하락)
 - 배추는 폭설이후 상품성 저하로 가격하향세 지속 전망
 - 무는 제주 월동무등 산지 출하조절로 강보합세 전망

- ▶ **양념채소** : 건고추 830천원/60kg, 마늘 33,800원/10kg(전년보다 상승)
 - 건고추는 단정기에 진입하며 약보합세 전망
 - 마늘 공급량은 충분하며 큰 시세변동 없는 보합세 전망
- ▶ **과 일 류** : 사과 54,200원/15kg, 배 34,000원/15kg(전년보다 하락)
 - 딸기·감귤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약보합세 전망
- ▶ **축 산 물** : 돼지고기 1,922원/100g(전년보다 상승)
 - 공급물량 감소 및 연말 송년회 외식수요 증가로 강보합세 전망

❁ 농수산식품 수입 동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14.12.9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전년 동기대비 5.3%증가한 77.4억불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 2015년 한우교배 책임질 보증씨수소 17마리 선발!
 - 내년 2월부터 한우농가에 정액 공급
- ▶ 접목선인장 생산성 높이는 2단 수경재배 평가 받아
 - 기존 방식보다 생산성 높고 노동력은 덜 수 있어

❁ 정책동향(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2015 달라진 주요제도와 시책
- ▶ 전남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본격 돌입
- ▶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총력 추진
- ▶ 국내산 돼지고기, 12월 28일부터 이력제 시행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중국, 아르헨티나의 GMO 옥수수형질‘아그리슈어 빙테라’수입허용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가격, 러시아의 수출감소 통제이후 하락
 - 옥수수, 크리스마스 휴일이후 거래감소로 상승
 - 대두, 기술적매수세로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전남농업기술원)

- ▶ 청년농부, 바위솔(와송) 첨가 전통식품 개발
 - 바위솔 첨가한 조청 및 고추장 상품화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 기 한/장 소 : ‘15. 1. 2 ~ ‘15. 2. 11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 상 사 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지 원 내 용 : 연리 1%, 시설·운영자금
- ▶ 201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 기 간/ 장 소 : ‘15. 1. 2 ~ ‘15. 1. 30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친환경 축산물인증 및 HACCP 지정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 대 상 사 업 :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운동장 구입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기타 친환경 축산에 필요한 정책사업 지원
 - 지 원 내 용 : 연리 1%, 시설·운영자금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4. 12. 2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2/29)	전주 (12/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41,400	41,400	41,625	43,600	40,167	↓ 5.0	↑ 3.1
	콩(백태)	35kg	138,000	139,000	140,000	156,600	186,333	↓ 11.9	↓ 25.9
	고구마(밤)	10kg	21,000	21,000	19,400	17,250	23,200	↑ 21.7	↓ 9.5
	감자(수미)	20kg	21,400	21,400	20,400	19,300	30,080	↑ 10.9	↓ 28.9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380	380	390	445	628	↓ 14.6	↓ 39.5
	양배추	10kg	5,000	5,000	4,400	5,050	6,743	↓ 1.0	↓ 25.8
	오이(다다기계통)	10kg	55,667	58,667	39,667	58,167	47,878	↓ 4.3	↑ 16.3
	애호박	8kg	26,600	28,800	18,600	23,950	22,683	↑ 11.1	↑ 17.3
	토마토	10kg	23,800	22,800	24,200	33,550	31,363	↓ 29.1	↓ 24.1
	무(월동)	1kg	440	450	-	438	-	↑ 0.5	-
	당근	20kg	16,200	16,600	16,000	20,000	22,093	↓ 19.0	↓ 26.7
	건고추(화건)	60kg	830,000	830,000	860,000	680,000	849,833	↑ 22.1	↓ 2.3
	풋고추	10kg	71,000	54,600	66,000	34,850	41,590	↑ 103.7	↑ 70.7
	마늘(난지)	10kg	33,800	33,800	33,800	27,400	34,680	↑ 23.4	↓ 2.5
	양파	1kg	520	520	520	815	834	↓ 36.2	↓ 37.6
	대파	1kg	1,400	1,500	1,060	1,280	1,708	↑ 9.4	↓ 18.0
	파프리카	5kg	31,000	28,200	20,150	26,050	29,323	↑ 19.0	↑ 5.7
	방울토마토	5kg	15,600	13,000	12,500	20,450	23,577	↓ 23.7	↓ 33.8
	딸기	1kg	14,600	13,800	-	-	-	-	-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54,200	54,600	54,200	72,600	72,933	↓ 25.3	↓ 25.7
	배(신고)	15kg	34,000	34,000	33,350	41,150	42,463	↓ 17.4	↓ 19.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2/29)	전주 (12/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4,000	514,000	514,000	534,000	560,333	↓ 3.7	↓ 8.3
	들깨	45kg	430,000	424,000	413,000	435,000	366,267	↓ 1.1	↑ 17.4
	새송이버섯	2kg	8,000	8,000	6,800	8,950	-	↓ 10.6	-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614	6,662	6,704	5,985	6,826	↑ 10.5	↓ 3.1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22	2,025	2,120	1,687	1,660	↑ 13.9	↑ 15.8
	닭고기	1kg	5,269	5,034	5,247	5,539	5,210	↓ 4.9	↑ 1.1
	계란(특란)	10개	1,999	1,990	1,976	1,981	1,840	↑ 0.9	↑ 8.6
	우유	1리터	2,548	2,546	2,546	2,537	2,246	↑ 0.4	↑ 13.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4.12.29.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605 천원	4,753 천원	3,772 천원	↓ 3.1	↑ 22.1
	거세	4,997 "	5,173 "	5,332 "	↓ 3.4	↓ 6.3
송아지 (6~7월)	암	1,724 "	1,611 "	1,197 "	↑ 7.0	↑ 44.0
	수	2,294 "	2,135 "	1,988 "	↑ 7.4	↑ 15.4
육우(600Kg)		3,277 "	3,451 "	2,577 "	↓ 5.0	↑ 27.2
젖소수송아지(7일령)		39 "	39 "	15 "	-	↑ 160.0
돼지(110kg)		380 "	398 "	309 "	↓ 4.5	↑ 23.0
육계(원/kg)		1,831 원	1,563 원	2,098 원	↑ 17.1	↓ 12.7
계란(원/특란10개)		1,353 원	1,344 원	1,408 원	↑ 0.7	↓ 3.9
오리(원/kg)		2,666 원	2,666 원	1,960 원	-	↑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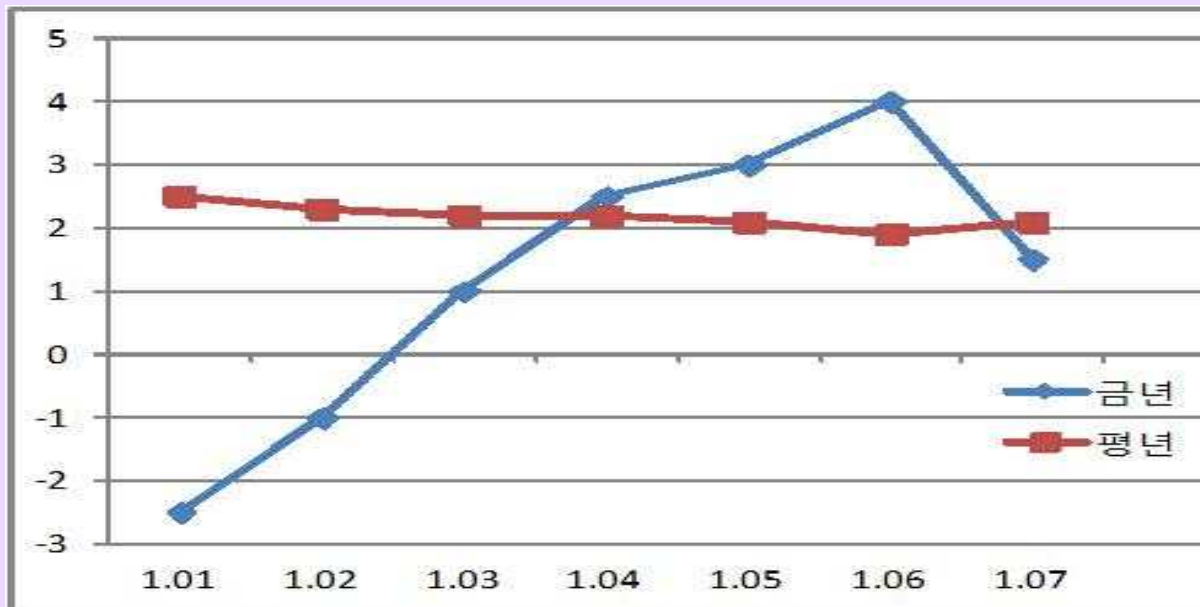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1	2.2	-1.1	3.8	6.7	-3.0	-1.5	-1.2	-0.3	0.9
1. 01(목)	-2.5	2.5	-5	-1	7.1	-8.1	-4	-0.9	-3.1	0.7
1. 02(금)	-1	2.3	-3.3	1	6.9	-5.9	-3	-1	-2	0.7
1. 03(토)	1	2.2	-1.2	4	6.8	-2.8	-2	-1.1	-0.9	0.8
1. 04(일)	2.5	2.2	0.3	6	6.8	-0.8	-1	-1.2	0.2	0.8
1. 05(월)	3	2.1	0.9	7	6.7	0.3	-1	-1.3	0.3	1.1
1. 06(화)	4	1.9	2.1	5	6.4	-1.4	3	-1.4	4.4	1.1
1. 07(수)	1.5	2.1	-0.6	4	6.5	-2.5	-1	-1.3	0.3	1.2

* 기온은 평균이고, 강수량은 합계이며, 평년은 2009-2013년까지 5년간 평균 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최근 배추 가격 동향 및 출하 전망

- 12월 도매가격 작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32%, 46% 낮은 수준
 - 12.24일 까지 배추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4,545원/10kg)과 평년(5,544원/10kg)동기 대비 각각 32%, 46% 낮은 3,060원/10Kg
 - 12월 중순까지 가격이 약세가 지속된 이유 : 가을배추 출하량이 많고, 김장철 이후 소비 부진 때문
- 12월 중순 전남 겨울배추 주산지(해남, 진도, 무안)에 눈이 많이 내렸으나 겨울배추 작황 피해는 미미하여 내년 1월 출하량은 금년보다 10% 많을 전망
 - 현재 남아있는 가을배추 출하가능물량은 전남 지역의 약 5~10% 내외이며, 12월 중으로 출하 마무리 될 것으로 조사
 - 이번 내린 폭설로 가을배추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품위가 저하되었으나, 눈이 녹은 후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겨울배추는 묶음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이번 폭설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여 출하량이 여전히 많은 상황
 - 눈 오기 전까지 겨울배추 작황이 양호하였고 묶은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 눈으로 인한 피해는 적은 상황
 - 따라서 내년 1월 배추 출하량은 겨울배추 산지 출하량 증가로 금년보다 10% 증가할 전망
 - 내년 1월 겨울배추 출하량은 금년보다 10%증가할 전망이다.

- 출하면적은 3%증가하고 출하단수는 7%내외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겨울배추 주산지 포전 상황>



자료: 월동배추 산지기동반, 12.23.

향후 가격 전망

□ 내년 1월 가격은 금년 동월보다 낮을 전망

○ 내년 1월 가격은 산지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낮았던 금년 동월보다 낮을 전망

- 내년 1월 가격은 겨울배추 주산지인 해남, 진도 출하량 증가 및 김장철 이후 소비 둔화로 가격이 낮았던 금년(3,937원/10kg, 상품)보다 낮은 3,000원 내외로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관측속보(14.12.24.일자)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추) 12월 가격 배추1kg에 380원
 - 주산지 전라도지역의 폭설에 따라 상품성 저하로 가격 하향세 지속 전망
- (무) 12월 가격 1kg에 440원
 - 제주 월동무 주출하되나 산지 출하조절로 강보합세 전망

과채 : 딸기, 토마토

- (딸기) 12월 가격 1kg에 14,600원
 - 출하량 증가와 소비확대에 따라 강보합세 전망
- (토마토) 12월 가격 10kg에 23,800원
 - 내년 1~2월에도 토마토 정식의향 늘어 당분간 가격 약세 전망

과일 : 사과, 배, 감귤

- (사과) 12월 가격 15kg에 54,200원
 - 연말을 맞아 제철과일인 딸기·감귤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약보합세 전망
- (배) 12월 가격 15kg에 34,000원
 - 배는 저장량 많아 신고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낮은 약세가 지속될 전망
- (감귤) 12월 가격 10kg에 19,200원
 - 간식용 가정소비 및 요식업소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량이 충분하여 보합세 전망

4. 농림수산물 수출동향[전국]

총 관

'14.12.9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한 **77.4억\$**

부류별 수출 이슈

신선		4.5% 1,034.8백만\$	<div>+</div> 인삼, 딸기, 배 <div>-</div> 파프리카, 팡이버섯, 가금육	<p>* 수출추이(백만\$)</p>
가공		11.9% 4,759.0백만\$	<div>+</div> 음료, 비스킷, 조제분유 <div>-</div> 설탕, 마요네즈, 막걸리	
수산물		3.4% 1,946.2백만\$	<div>+</div> 참치, 김, 미역 <div>-</div> 넙치, 오징어, 전복	

주요 국가별 이슈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반영

일본		<div>농식품부 aT</div> <div>전체(증감률) : 1,970백만불(0.3%) 품목별 : 굴(2%), 제3맥주(2%), 막걸리(△32%), 파프리카(△6%)</div>	온라인 야후 쇼핑물 연계 한국식품 판촉(12.1~12.31)
중국		<div>농식품부 aT</div> <div>전체(증감률) : 1,214백만불(△1%) 품목별 : 조제분유(32%), 커피조제품(4%), 오징어(△46%), 설탕(△18%)</div>	화북 롯데마트 연계 유제품 판촉(12.17~12.31), 메트로, 가르푸 등 13개소 연계 종합판촉(11.24~12.31), 중국 수출전진기기 이용업체 설명회 개최(12.15)
미국		<div>농식품부 aT</div> <div>전체(증감률) : 754백만불(9%) 품목별 : 배(24%), 비스킷(6%), 굴(△11%), 김치(△2%)</div>	Unified Grocers연계 2차 한국식품 종합판촉행사(11.6~12.15), 캐나다, 지하철 및 정류장 내 단감 홍보광고(12.1~12.31), 히스패닉 마켓 연계 나누배 판촉(11.28~12.14)
홍콩		<div>농식품부 aT</div> <div>전체(증감률) : 372백만불(7%) 품목별 : 라면(13%), 유자차(5%), 굴(△31%), 비스킷(△10%)</div>	딸기 수출확대를 위한 미디어 광고 실시(12.18~), 수출유망품목 홍보 프로그램 현지 방영(11월~12월 중순)
ASEAN		<div>농식품부 aT</div> <div>전체(증감률) : 1,246백만불(1%) 품목별 : 오징어(23%), 닭고기(17%), 커피조제품(△9%), 설탕(△7%)</div>	태국 지상철(BTS) 연계 신선농산물 광고(11.1~12.31)
EU		<div>농식품부 aT</div> <div>전체(증감률) : 413백만불(11%) 품목별 : 참치(70%), 라면(2%), 새송이버섯(△3%), 채소종자(△17%)</div>	새송이버섯 모바일 배너광고(12.1~12.31), Grab&Fly 7개소 연계 한국식품 종합판촉(12.1~12.19)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수출 이슈



<딸기, 동남아로 수출 지속 증가세>



- ▶ (성공요인) 높은 당도와 달콤한 향을 강조한 적극적인 해외 홍보판촉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딸기밭 체험프로그램 등 국내 홍보로 수출 증가세



- ▶ '14.12.9 누계 수출실적(전년대비 증감률) : 28.0백만불(10%)
- ▶ 주요 수출국('14.12.9) : 홍콩(9.3백만불, △1%), 싱가포르(9.3, 18), 말레이시아(3.2, 12), 태국(2.2, 6)



<과자류, 중국·미국으로 수출 성장세>



- ▶ (성공요인) 중국 유아용 시장의 성장으로 유아용 과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글루텐프리 식품 수요 증가로 쌀과자 및 곡류조제품 수출 증가세



- ▶ '14.12.9 누계 수출실적(전년대비 증감률) : 458.0백만불(14%)
- ▶ 주요 수출국('14.12.9) : 일본(114.8백만불, △0.1%), 중국(114.2, 24), 미국(56.7, 18), 러시아(23.1, 18), 홍콩(20.8, 6)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확대>



- ▶ (성공요인)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이 8월 처음 시작되었고, 이에 맞춰 삼계탕 인지도 제고를 위한 판촉, 미디어홍보행사 집중 추진



- ▶ '14.12.9 누계 수출실적(전년대비 증감률) : 6.6백만불(△1%)
- ▶ 주요 수출국('14.12.9) : 일본(3.2백만불, △32%), 대만(1.1, △6), 홍콩(0.9, 35), 미국(0.8, 0)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2015년 한우고배 책임질 보증씨수소 17마리 선발!

— 내년 2월부터 한우농가에 정액 공급 —

농촌진흥청은 12월 16일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를 열고 내년 한우고배를 책임질 한우 보증씨수소 17마리를 선발했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사업의 하나이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당대와 후대 검정을 실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평가를 거쳐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이날 유전능력과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해 선발한 보증씨수소 번호는 KPN¹⁾830, KPN944, KPN954, KPN963, KPN964, KPN965, KPN966, KPN967, KPN968, KPN969, KPN972, KPN973, KPN975, KPN976, KPN978, KPN980, KPN984이다.

도체중²⁾과 등심 단면적 유전능력은 KPN944, 등지방두께 유전능력은 KPN969, 근내지방도³⁾ 유전능력은 KPN976이 각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김천 육종농가에서 1마리,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5마리, 경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1마리가 선발돼 지역의 한우육종센터와 육종농가에서 보유한 한우의 우수한 유전능력을 보여줬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정액은 2015년 2월부터 농가에서 활용할

1) Korean Proven Bull Number의 약자로 한우능력검정 결과에 따라 선발된 보증씨수소에 부여된 고유 번호.

2) 생체에서 두부, 내장, 족과 가죽 등 부산물 부분을 제외한 무게.

3) 근육 사이에 지방이 침착한 정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정액 주문은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누리집 (www.limc.co.kr, 씨수소 안내→한우정액주문 안내)을 통해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보석 가축개량평가과장은 “특정 형질의 능력이 좋은 정액이나 남들이 많이 찾는 정액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며

“암소의 유전능력과 약점 및 강점, 정액의 가격, 농가 개량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을 선택하고 교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암소의 능력에 맞는 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우농가 맞춤형 교배계획 시스템(<http://plaza.nias.go.kr/mating>)’과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www.nias.go.kr → 연구활용 → 농가활용프로그램)’를 제공하고 있다.

■ 접목선인장 생산성 높이는 2단 수경재배 평가 받아

— 기존 방식보다 생산성 높고 노동력은 덜 수 있어—

농촌진흥청은 접목선인장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2단 수경재배 기술을 알리기 위해 23일 경기도 고양시 접목선인장 수출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에는 화훼관련 전문가와 수출·유통업자 등이 참석해 2단 수경재배 생산시설을 직접 보며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다.

접목선인장은 15cm 정도로 작는데, 기존에는 토양의 바닥에서만

재배해 전체 공간 활용도가 낮았다.

또한, 기존의 토양재배에서는 이어짓기 장애로 작기마다 곁흙을 10cm 이상 걷어내고 다시 흙을 넣는 배양토 조제와 교체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개발한 2단계 수경재배는 부직포와 벼 육묘상자를 이용한 저면 공급 방법이다.

1단 베드재배 대신 2단의 다단 방식을 이용해 생산성이 높아졌다. 또한, 노동력이 많이 드는 기존의 토양 재배를 대체할 수 있다.

2단의 베드를 설치하고 베드 안에 부직포와 벼 육묘상자를 이용해 접목선인장 생력트레이 위에 재배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수경재배와 달리 제어장치가 필요없고, 폐양액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한, 양액에 직접 닿지 않아 줄기나 밑 부분이 썩지 않고 땅에 닿는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깨끗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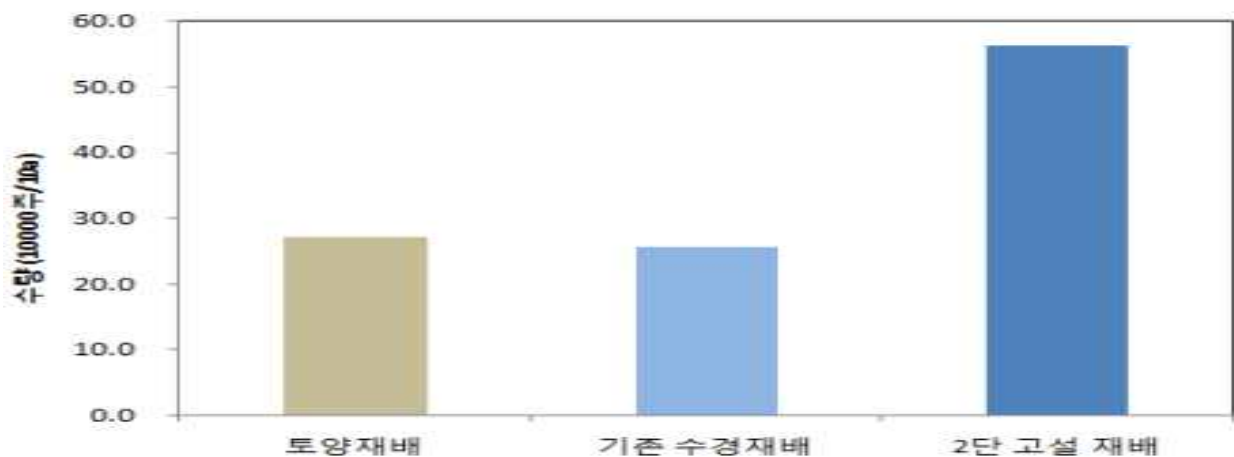
접목선인장은 수출 효자 작목으로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등 미주, 호주, 일본 등에 수출된다. 세계 교역량의 70% 이상이 국내 생산품이며 수출이 늘어 300만 달러를 넘고 있다.

국외 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수출 여건의 변화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2단 재배를 통한 경제적 추정 효과(10a)

- 2단 재배로 10a 당 5,600만 원 수익 기대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경재배 베드(EBB) 대신 2단 설치 시 증가비용 약 18만 원/3.3m²≒5,400만 원/10a - 계(A) : 5,4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수량 증수 380원×30만 주≒ 1억1,000만 원 - 계(B) : 1억1,000만 원
○ 추정 수익액(B-A) ≒ 5,600만 원	



- 양액 재배 베드를 2단 벤치로 만들어 2배로 활용
- 개발한 다단계 수경재배는 부직포와 벼 육묘상자를 이용한 저면 공급으로, 간이 양액 베드 재배를 2단으로 해 생산성을 높여 유럽에서 이용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높임

* 출처: 농촌진흥청

6. 정책동향

◆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2015 달라진 주요제도와 시책

부서명	현 행	'15년 달라진 점
농업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전남농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홈페이지·블로그 게시, 이메일 송부 ○ 농업정보 메신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명, 재배동향·작황정보 등 수집·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보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구축 운영(신규) ○ 격월간 전남농업정보 발간(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부 청년·선도농업인 등 우송
농업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253개소 -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지원 (개소당) : 연 15일이내, 1,2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 506개소 -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지원 (개소당) : 연 25일이내, 2,000천원
농업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 45일이내, 4만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확대 : 70일이내, 5만원/일
농업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 운영 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 투숙객에게 조식(朝食) 제공 가능 (민박요금에 포함)
농업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7년 이상), 귀농인('09.1월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자격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 귀농인 제한 없이 지원가능 ※ 후계농 경력, 귀농시기 제한조건 삭제
농업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 우선 추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학교 졸업자 및 40세 미만자 20%이내 우선 추천(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경영인 우선 추천 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학교 졸업자 및 40세 미만자 우선 추천을 30% 이내로 확대

부서명	현 행	'15년 달라진 점
친환경 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소득보전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평균90만원 (진흥지역 97만원, 진흥지역밖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소득보전직불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평균 100만원 (진흥지역 107만원, 진흥지역밖 83)
친환경 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유기농 100만원, 무농약 7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70만원
친환경 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부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비 부담(보조 80%, 자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비 부담(보조 90%, 자담 10%)
친환경 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직불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5년간 지원(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직불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후에도 지속 지원(국비, 지방비)
친환경 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끼우렁이 공급 시 자부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12만원(도비 10%, 시군비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끼우렁이 공급 시 일부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당 12만원(도비 10%, 시군비 80%, 자담 10%)
친환경 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농업인 - 신청시기 : 매년 11. 1.~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신청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등록된 농업경영체 - 신청시기 : 매년 10. 20.~11. 30.
친환경 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사업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사업 융자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60%, 자담 40%(융자 폐지)
식품 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을 유기농 쌀로 공급
식품 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쌀 택배비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에서 전남쌀 구입시 택배비 일부 (1,500원/1포대 20kg) 지원
식품 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인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3단계 12종, 소요기간 1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제도 인증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1단계 3종, 소요기간 42일

부서명	현 행	'15년 달라진 점
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11.12.31 이전 축산업등록 면적 범 위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확대 지원 - 가금류 방역시설에 대해 축산업등록 면적과 상관없이 지원
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오리 도축장 검사관 - 도축장 책임수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오리 도축장 공무원 검사관 제도 시행 - 도축실적에 따라 공무원 검사관 제도 단계적 도입
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허가제 대상 - 전업농(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이상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 준 전업농(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이상 허가
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 - 1일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 단계적 확대 - 집유장은 2년, 유가공장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생산표시 의무 : 타도 반출 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료 생산표시제 의무화 확대 - 조사료 사업지원사업에 의하여 생산 된 물량에 전체 표시
산림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위주의 나무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정책나무심기와 함께 주민참여 숲 조성·관리 - 민·관 나무심기 추진협의회 운영
산림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목벌채 기준 벌기령 : 15~50년 - 포플러 15년, 소나무 50년, 편백 50년, 참나무류 5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목벌채 기준 벌기령 완화 : 3~40년 - 포플러 3년, 소나무 40년, 편백 40년, 참나무류 25년
산림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일시사용 허용 면적 3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일시사용 허용면적 5만㎡ 로 확대
산림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 : 도 - 관련 분야 종사경력 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용 종묘생산업 등록 완화 : 시·군 - 관련 분야 종사경력 1 ~ 2년

◆ 전남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본격 돌입

- 전남도는 12. 26일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중의 하나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숲속의 전남 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34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34명으로 구성된 민간추진협의회는 주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임업단체 대표 등 시군에서 추천한 22명과 경관·산림·환경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주민과 직능단체의 역할을 한데 모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시군별 사업계획 기획·조정·지도와 숲 문화 확산, 숲 체험교육, 아름다운 숲 보전운동 등 숲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활동도 전개하게 된다.
- 「숲속의 전남 추진협의회」는 사회지도층 중심을 탈피해 부녀회·직능단체, 청년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상향식으로 구성·운영 된다.
- 「숲속의 전남」만들기는 2015년부터 본격추진하게 되며, 2024년까지 매년 경관과 소득수종 약 1억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

◆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총력 추진

- 전남도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

지침(SOP)을 개정하여 공포함에 따라 일선 농가와 행정에서 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 강화 등 총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이 알기 쉽고 거부감이 없도록 오염(발생농장 500m이내) · 위험(500m~3km이내) · 경계(3km~10km이내)지역의 용어를 관리 · 보호 · 예찰지역으로 순화했으며
- 또한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정밀검사기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역량을 갖춘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자체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축의 실소유자인 계열업체의 방역 의무가 없어,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지원 노력 소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의 방역교육 및 소독 · 예찰 실시, 살처분 등 방역조치 지원을 의무화 했다.
-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과도한 살처분(500m 또는 3km이내) 규정을 발생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시행토록 명확히 했다.
- 특히 과도한 이동제한으로 농가와 업체의 경영능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발생을 유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지역 내에 출하일령에 도달한 가금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면 도축 출하를 허용하고
- 방역대 내에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도 방역대내 전 가금농장

- 에 대해 검사결과 음성이면 방역대 밖의 가금도 도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예찰지역 내 오리 부화장도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농장의 경우에는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시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하고, 이동제한 해제 후 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병아리를 반출토록 허용하는 등 이동제한에 따른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 도는 이번에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방역워크숍에서 집중적으로 알렸다면서,
 -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개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과 향후 “방역체계 개선 T/F팀”에서 마련할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도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국내산 돼지고기, 12월 28일부터 이력제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8일부터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12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굴·보완

하였으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지 및 돼지고기를 포함한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공포('13.12.27)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가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도입목적)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이로 인해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 (사육단계)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감안하여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 이력관리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매개로한 농장단위 이력관리가 효율적임

*농장식별번호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

□ (도축단계)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도축되는 모든 돼지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도축(경매결과 포함)결과도 매일 신고해야 한다.

○ 이는 돼지고기의 신속한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도축결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유통단계에서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력번호: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로 축종코드(1) + 농장식별번호(6) + 일련번호(5)로 총 **12자리**로 구성

□ (포장처리 및 판매단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또한,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 전산신고를 의무화하였고 이 같은 신고·표시 및 기록 등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포장처리업소(도축장 연접, 종업원 5인 이상),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자(5인 이상, 면적 50㎡ 이상)

□ (소비단계)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 상담을 위해 현재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를,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사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되는 문구를 ‘이력번호’로 통일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 (지도·감독 및 벌칙 등) 돼지고기 이력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제조치를 마련하였다.

-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제도이행 대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 (기존) 농식품부장관 → (확대) 기존 + 시·도지사

- 유통업소의 벌금·과태료 처분(연 2회 이상)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지자체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인터넷 누리집에 위반업소의 정보를 공개(12개월)한다.
- 다만, 유통단계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포장처리 신고자 및 거래 신고자 중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돼지고기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쇠고기 취급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등의 과태료 처분은 '1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 (교육·홍보)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도축 후 포장처리 및 판매 과정에서 둔갑판매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돼지고기이력제의 투명성 확보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지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기대효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라며,

○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이 가능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원인규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 이력관리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가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닭·오리농장 관리 프로그램’ 내년 보급

- 농촌진흥청은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축산 농장종합지원시스템 ‘한우리’의 닭·오리 관리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2015년 1월부터 농가에 제공한다.
- ‘한우리’는 가축 사육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편리하게 농장을 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1단계로 올해 1월부터 한우·비육우 농장을 대상으로 보급해 왔으며, 2단계로 2015년 1월부터 닭과 오리 농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번에 추가로 개발한 ‘한우리 가금농장 관리프로그램’은 육계와 산란계, 오리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HACCP 기록관리, 사육관리, 영양관리, 일정관리 등 총 4분야 25개 관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 HACCP 기록 관리는 농장 관리 일지와 해충, 소독,약품, 출하 등 HACCP 인증의 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 사육 관리는 입추정보, 산란정보를 관리해주며, 육성률과 평균 체중, 사료급여량, 사료요구율, 생산지수, 산란율, 폐사율, 산란양 등 생산성을 분석해 제공한다.
- 경영 관리는 농가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관리해 마리 당 수익을 파악할 수 있다.
- 일정 관리는 사료교체 시기와 백신 접종 등 시기별로 농가에

서 놓치기 쉬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육계와 오리농가의 95% 이상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계열업체가 병아리·사료 등 생산 자재를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축사와 노동력을 이용해 닭과 오리를 키우면 미리 정한 사육 보수를 받는다.

○ 계열화사업자 간 사육 일지의 기록 항목은 비슷하지만 양식이 달라 도중에 협력 업체를 바꾸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다.

○ 이번에 개발한 ‘한우리 가금농장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표준양식에 따라 사육 일지를 작성하므로 이 같은 불편은 줄게 된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리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해 한국육계협회, 오리협회, 계열사와 협의회를 열고 계열사별 각기 다른 사육 일지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 또, 온도·습도에 따른 체중 변화, 산란능력 등 생산성 분석과 함께 표준자료가 제시돼 사육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아울러, 농장단계의 HACCP 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소비자입장에서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월부터 ‘한우리(<http://hanwoori.nias.go.kr>)’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표준규격 정비로 농산물 유통기반을 다지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월 24일 『농산물 표준규격』을 산지 생산·유통 및 소비지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 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선별, 포장, 유통 시 필요한 규격기준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으로,
 - 농산물 표준규격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과
 - * 거래단위(사과, 배 등 118품목), 포장치수(520×280mm 등 115개), 포장재료(골판지, P·E대 등 7종), 표시사항(의무 7종, 권장 4종)
 - 품목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선택, 신선도, 결점 등 품위 기준을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한 등급규격*으로 구성된다.
 - * 81품목(과실류 10, 채소류 23, 서류 2, 특작류 5, 버섯류 5, 곡류 16, 화훼류 20)
- 올해 표준규격 개정은 관련 정책 의견수렴 및 자료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품질고급화, 유통활성화,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이다.

- * 핵가족화 등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점차 소포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포장이 농가 수취가격 향상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주요산지인 강원도 등지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풋옥수수의 「20개」 거래 단위를 표준규격에 새롭게 추가하여 현행 「30개」 개 보다 소포장화가 거래가 가능토록 하였고,
 - * 현 풋옥수수 표준거래단위 : 개수 30, 40, 50개(3단계)와 무게 8, 10, 15kg(3단계)로 구성
- 사과는 금번 개정에서 최대 규격단위 「15kg」을 표준 거래 단위에서 삭제하여 소포장 유통으로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15년 8.1부터 15kg에서 10kg 단위로 공영도매시장의 사과 경매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 * 현 사과 표준거래단위 : 5, 7.5, 10, 15kg(4단계)
- 또한, 부피에 비해 개당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품목의 소포장에 유리한 투명소포장*은 현 2kg미만에서 3kg미만까지로 포장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선호도 요구에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
 - *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예 : 단호박)
- 더하여 최근 표준으로 추가 채택된 T12형(1,200×1,000mm) 팰릿*도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포장재 치수 사용 시 기본 팰릿으로 사용가능토록 하여 국·내외 물류출하 활성화를 기

하고자 하였다.

* 기존, T11형(1,100×1,100mm) 1종에서 T12형(1,200×1,000mm)도 표준팰릿으로 추가됨(기술표준원, 2013.12.18.)

□ 금번 표준규격 개정에는 등급 규격 또한 현장의 생산 여건과 유통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현재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의 표준규격을 신규 제정하여 농가의 생산 편의성과 소득을 높여가고자 하였다.

- 현재 매실 생산 산지에서 지름 선별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지름(mm)으로 크기를 구분하는 것을 반영해, 현 매실의 크기 구분인 무게기준 한 가지 외에 지름기준을 추가하여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생산농가의 선별 편의성을 높였으며,
- 참외의 신선도는 소비 시 수확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과육 외피의 갈변정도가 신선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있음에, 현 꼭지의 시들음 정도를 중심으로 설정된 신선도 지표*를 갈변현상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다.

* 현재 과육의 성숙 정도가 적당하며, 꼭지가 시들지 아니하고 신선도가 뛰어난 것

- 한편, 생산·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브로콜리의 등급 규격(특·상·보통)을 금번 개정 시 신설하여 품질고급화 및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였다.

□ 이번에 개정되는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는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개정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 (<http://www.naq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고

- 다만, 사과 표준거래단위 15kg삭제는 기존 포장재 재고량 소모 등을 감안해 2015년 햇사과가 출시되기 시작하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 2015년 식품 소비 트렌드 예측 Top5

몸에 좋은 식재료를 선호하는 경향은 격변하는 소비자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영국의 국제적인 시장 조사기관인 캐나딘(Canadean)이 발표한 2015년 식품 소비 경향 예측 Top 5이다.

□ 몸에 좋은 식재료 추구

- 건강에 이로운 식재료 추구는 설탕과 같은 몸에 해로운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에서 반영된다. 올해 코카콜라와 펩시를 포함한 인기 제품에 천연 당류인 스테비아를 첨가하여 시중에 선보인 것을 비롯하여 내년 한 해에는 더 많은 몸에 좋은 천연 대체 식재료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서는 대체 재료를 첨가한 식품은 맛이 없다는 소비자의 고정관념과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도전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대량생산에서 맞춤형 생산으로

- 맞춤형 생산에 대한 선호는 수제식품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 많은 소비자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의 품질검증과 선택하는 상표와의 친밀한 연결을 원하므로 대량생산보다는 소규모로 생산된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브랜드 독점성과 제조과정의 강조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

- 소비자들은 갈수록 매운 음식을 선호하며 이에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육류, 유제품 또는 스낵류에 점점 더 매운 식재료를 가미하며 브랜드 혁신을 꾀할 것이다.
- 이미 칠리소스가 첨가된 많은 식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통해 매운 맛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 조사기관은 앞으로는 매운 맛의 대명사로 통했던 인도와 멕시코 음식에서 더 나아가 떠오르는 매운 음식인 동남아시아 및 중동 음식 등이 매운 음식 선호 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견하였다.

□ 좋아하는 맛과 향으로 조합한 퓨전 음식

- 소비자들은 좋아하는 맛과 향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믹스 앤 매치 식품을 갈망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짭컌름한 아몬드향의 이탈리아 술 아마레토와 프랑스의 사과주인 시드르를 조합한 아마레토 시드르나 초콜릿 향 와인 등 다양한 조합의 식품이 앞으로 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실험적인 음식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위해 생산자들은 다양한 식재료의 조합을 통한 혁신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조사자들이 분석하였다.

□ 오감만족 패키지

- 경쟁제품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살아남고 신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끄는 혁신적인 제품포장이 있다.
- 포장지의 촉감, 밝은 색상 그리고 눈에 띄는 제품정보 표기 등 ‘햅틱’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감각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최종 구매로 이어지는데 한 몫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7. 해외 농업정보

◆ 중국, 아르헨티나의 GMO 옥수수형질 ‘아그리슈어 밍테라’ 수입허용

아르헨티나 농업부에 따르면 중국이 아르헨티나의 유전자변형 (GMO) 옥수수형질 중 하나인 신젠타 아그리슈어 밍테라에 대해 수입을 허용했다고 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의 그 옥수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몇 년간 협상을 시도해왔다. 남미 국가들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옥수수 수출국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다른 GMO 옥수수형질의 수입에 대해서도 이미 허가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수입실적은 거의 없었다. 또한 중국은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규제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두형질 A5547-127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대두수출국이자 대두박 공급국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4.12.29(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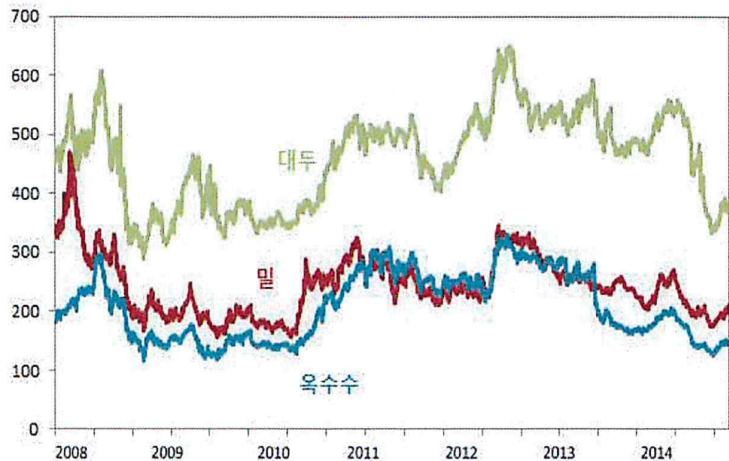
밀가격, 러시아의 수출감소 통제이후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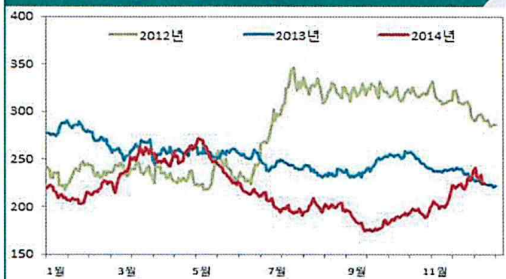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4.12.26)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1)	2013 평균
밀	224.35	▼0.1%	199	251
옥수수	163.22	▲1.7%	147	228
대두	384.85	▲1.8%	379	51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3월물, 대두:1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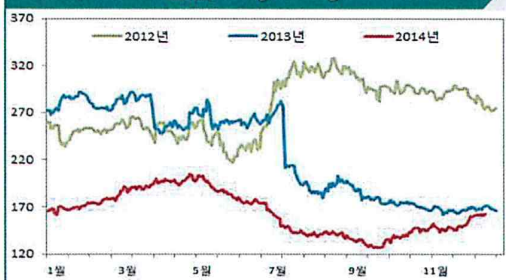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지난주 7개월래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러시아의 수출제한 전망발표로 이틀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목요일, 러시아는 국내곡물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년 2월1일부터 톤당 35유로미만의 수출관세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음. 러시아는 올해 루블 가치하락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105백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여 사상 최대 수출물량을 기록했음. 한편 다음주 미국 대평야의 강설은 휴면종인 밀작물을 일시적 한파로부터 보호해 줄 것임.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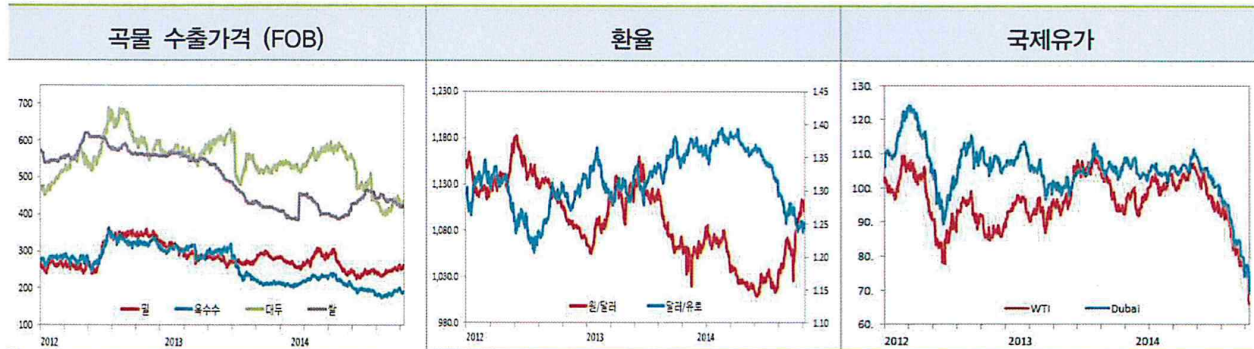
옥수수가격은 주요 뉴스가 부재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휴일이후 거래감소로 상승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적매수세로 상승했으며, 대두유는 말레이시아의 심각한 홍수에 따른 야자유생산 차질로 상승했음. 야자유와 대두유는 상호간의 대체가 가능한 종류임.

- 곡물 수출가격은 공휴일 전일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
- 국제유가는 세계석유 공급과잉 우려심화,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나 리비아 정정불안 심화로 하락폭이 제한되었음.



구 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1)	2013 평균	2012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81	▲1.1%	256	284	300
	옥수수	191	▲0.5%	192	265	300
	대두	418	—	432	556	571
	쌀	420	—	424	488	572
환 율	원/달러	1,100	▼0.4%	1,096	1,095	1,127
	달러/유로	1,218	▼0.3%	1,25	1,33	1,29
국제유가 (US\$/barrel)	WTI	54.73	▼2.0%	75.70	97.94	94.19
	Dubai	56.32	▼1.6%	77.09	105.32	109.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4.12.23(수출가격), '14.12.29(환율), '14.12.2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유전자변형 옥수수형질 아그리슈어 법테라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으며 대두 A557-127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했음.
-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곡물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엘니뇨는 매우 약하여 옥수수 및 대두작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 러시아 정부는 12월23일 경매에서 밀 10,800톤을 구매했으며, 9월30일 이후 누적 곡물구매량은 292,660톤으로 3등급 밀 15,660톤과 4등급 밀 42,930톤을 포함한다고 함.
- 유엔은 케냐 및 지부티로 선적될 예정이었던 인도산 수수 18,500톤을 구매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청년농부, 바위솔(와송) 첨가 전통식품 개발

- 바위솔 첨가한 조청 및 고추장 상품화 -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양성하고 있는 농촌 청년사업가가 바위솔(와송)을 첨가한 전통식품을 개발했다.

‘진도허브 농원’ 지경준(31) 대표는 2014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용 생리활성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예로부터 한방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위솔을 첨가한 조청과 고추장 제품을 출시했다.

지 대표는 “최근에 바위솔이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즙, 효소액, 환, 가루 등 가공 제품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밥상에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바위솔 가공제품은 직접 채취하거나 산비탈 노지에서 친환경 재배한 바위솔과 진도 특산물인 홍미, 흑미, 구기자 만을 사용하여 무쇠 가마솥을 이용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하여 타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하였고, 금년에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에 출시한 바위솔 구기자 조청과 고추장은 국내최초 바위솔을 첨가를 시도한 전통식품으로 각 300g의 조청과 고추장으로 1개 세트를 구성하여 2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토박이로 웨에이전시에서 마케팅과 관련된 직장에서 일했던 지대표가 농사꾼이 된 배경은 뇌출혈로 병원생활을 시작한 어머니의 재활치료 때문이었다. 병간호를 위해 불가 부득이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진도에 머물게 되었을 때 바위술을 재배하고 계신 외삼촌 농삿일을 돕게 되었고, 바위술 매력에 푹 빠져, 2013년 3월에 본격적으로 바위술 농사에 뛰어들게 되었다.

지 대표는 “바위술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널리 사용해 오고 있으며, 2013년 식약청에서 정식 식품원료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과 식품으로 가공했을 때 기능성 성분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개발에 노력하겠다. 또한 진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위술을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 신청

- 기간/장소 : '15. 1. 2 ~ '15. 2. 11 까지 /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용자한도(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리 1%
- 용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 2015년 녹색축산물성기금 용자지원 사업

- 기간/장소 : '15. 1. 2 ~ '15. 1. 30 까지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친환경 축산물인증 및 HACCP 지정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운동장 구입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기타 친환경 축산에 필요한 정책사업 지원
- 대출이율 : 연리 1%
- 융자한도
 - 시설자금 : 2억원 ~10억원 이내,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1억원 ~3억원 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

◆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4. 12. 17 ~ '15. 1. 16 까지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지원단가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 사업내용 : 경영·대외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브랜드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 컨설팅(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주간

전남농업정보 15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2

Fax. 061-286-4782